

2023-1학기 편지쓰기 후기공모전  
수상작품집



공감의 내일이 열립니다  
가천대학교 의사소통센터

< 차례 >

· 강*현(자유전공학부) .....	3
· 권*진(컴퓨터공학과) .....	5
· 김*은(관광경영학과) .....	7
· 박*아(한국어문학과) .....	9
· 박*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11
· 양*주(화공생명공학과) .....	13
· 오*연(간호학과) .....	15
· 유*연(행정학과) .....	17
· 최*영(간호학과) .....	19
· 한*진(화공생명공학과) .....	21

### 강\*현(자유전공학부)

효사랑 스승사랑 편지쓰기 프로그램은 평소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에게 손편지를 써 우편으로 발송하는 프로그램이다. 4월에 WIND 시스템을 보던 중 편지 디자인 공모 공지를 보게 되었는데, 같은 학우가 만든 편지지에 편지를 써서 전하면 더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참여를 다짐하고 있었다. 또한 특별한 편지지에 편지를 써서 드리면 부모님에게도 더 특별한 기억을 만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효사랑 스승사랑 편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결심한 이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단연코 부모님이었다. 평소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친구들에게는 꽤 자주 편지를 썼던 나였는데, 생각해보니 가장 가까운 존재인 부모님에게는 편지 쓰기를 망설여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어버이날마다 편지를 써오긴 했지만, 어버이날이라는 의무감에 형식적인 내용만 써왔던 것 같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 편지는 내 진짜 마음을 담아보자는 다짐을 하고, 편지지가 올 날을 기다렸다.

우편이 도착하고, 봉투를 뜯어본 나는 깜짝 놀랐다. 무한대상, 무한이, 토끼 '쿠키' 등 가천대의 상징들이 그려진 편지지가 너무나도 귀여웠기 때문이다. 내 마음에 쏙 들었기에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진심을 담아내겠다는 다짐대로, 이번 편지는 내 감정을 진솔하게 담아내는데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목마를 태워주는 영상을 본 후 내가 느꼈던 감정, 고3 시절 내가 힘들어했을 때 묵묵히 옆에 있어 주셨던 엄마에 대한 감사함, 까칠한 나의 모습도 사랑해주는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 하나 하나 적어 내려가다 보니 눈물이 났다. 주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부모님과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니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이제야 이런 당연한 사실을 깨달았더니, 부끄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보답하겠다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지금부터 나의 사랑을 솔직하게 표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난 이 프로그램을 학우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한다. 사실 우리는 가까운 사람 일수록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다. 너무나도 가깝기에 그 사람은 언제나 그곳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끔은 상처가 되는 말들을 대수롭지 않게 내뱉기도 한다. 나 또한 그랬고 말이다. 그러나 손편지를 쓰며 내 생각을 정리하고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실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한층 더 부모님과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다. 실제로 편지를 받으신 부모님도 감동하시며 고맙다고 말해주셨고, 그로 인해 가족 간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졌다. 또한 직접 전하기 부끄러운 말들을 글로 한층 편하게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는 것 같다. 더 많은 학우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면 좋겠고, 나 또한 다음 효사랑 스승사랑 편지쓰기 프로그램도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 권\*진(컴퓨터공학과)

마음이음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 상담 교육을 들은 후, 의사전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글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효사랑 스승사랑 편지쓰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효사랑 스승사랑 편지쓰기는 가천대학교의 의사소통센터에서 진행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부모님/스승님 등 평소 고마운 마음이 있는 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손편지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는 프로그램이다. 과거에는 거리라는 제한조건으로 인해 하나하나 소중한 연락이 현대에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연락의 빈도는 증가하였지만 그만큼 깊이 있고 애뜻한 이야기를 하는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낮간지러운 마음을 억누르며 어머니에게 평소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전하고자 참여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신청 후, 편지 내용을 작성하고자 책상 앞에 앉았지만 막상 뭐라고 써야할지 너무나도 막막하였다. 누가 봐도 평소 편지를 쓰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바로 티가 났다. 한참을 무슨 말로 시작을 해야할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민만 하다가 편지에 한 자도 적지 못한 채 며칠이 지나갔다. 그러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다잡고 편지지에 첫 줄을 작성하였는데 꿈지럭거린 지난 시간이 무색하게 순식간에 편지지의 첫 장을 다 채웠다. 뭐든 처음이 가장 어렵다는 말이 떠오르면서 마지막 장을 작성할 때는 종이가 부족해서 아쉽다고까지 생각이 들었다.

작성한 편지는 이번에 다시 대학을 다니시게 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게 되신 어머니에게 응원을 전달하는 내용이였다. 어머니는 첫 대학을 다닐 당시와는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어려워하시는 점이 많으셨다. 학기 초에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과제를 제출하는 등의 나는 당연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많이 힘들어하셨다. 내가 직접 옆에서 알려 드리고 싶지만 본가가 멀어 구두로만 전달이 가능한 상황에서 가끔은 원활하지 않는 소통에 많이 답답하기도 하였다. 그러다보니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한 간단한 문제도 빠르게 해결이 되지 않아 점점 여유가 없어지고 가끔은 대충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런 죄송한 마음에 편지를 작성하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고 반성과 다짐도 하고 학교에 다니면서 학업 외의 소소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머니께도 학업뿐만 아니라 다른 추억들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작성했다.

활동을 하면서 카카오톡이나 전화와는 다른, 편지의 정돈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매력을 느꼈다. 말이라는 것은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에 더 조심해야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던 순간이 더 많았던 것 같

았다. 그리고 편지를 작성하면서 생각을 전달하기 전에 문자로 한 자 한 자 써 나가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등 평소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게다가 나의 편지를 읽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도 상상해보면서 단순한 프로그램 활동이 아닌 하나의 추억이 생겼다.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보자고 마음을 먹었다. 이번 학기부터는 집을 출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평생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았던 시절만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게 되겠지만 편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있다.

다들 대학생이 되면서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 살게 되면서 본가를 나와 본인처럼 주거지가 바뀐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앞으로는 더욱 자신만의 세계와 영역을 확장해 나갈 사회초년생인 분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첫 편지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부모님에게 편지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독립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앞으로는 더욱 줄어들 부모님과 같이 지내는 시간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확신한다. 부모님은 계시는 동안은 후회하지 않도록 부모님께 편지를 주고 받으며 많은 이야기와 추억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 김\*은(관광경영학과)

효사랑 스승사랑 편지쓰기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이나 스승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손편지로 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편지지는 편지지와 편지봉투 디자인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으로 가천대학교의 명물인 무당이와 가천관, 바람개비 동산이 귀엽게 그려져있다.

학교에 합격한 후 받은 가천대 안내 책자에 효사랑 스승사랑 편지쓰기 대회가 있는 걸 보고 꼭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었다. 평소에 편지를 쓰면서 받는 사람에 대해 골똥히 생각하는 시간을 좋아해 종종 편지를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윈드 시스템에 효사랑 스승사랑 편지쓰기 대회가 올라왔을 때 빠르게 신청했었다. 받는 사람은 어머니로 선정했다. 작년에 재수를 하면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나를 지켜보는 어머니가 꽤 고생하셨기 때문이다. 그때의 어머니에게 들었던 죄송함과 감사함을 편지로 작성하기로 하며 편지지가 도착할 날을 기다렸다.

편지를 쓰면서 힘들었던 시기를 회상했더니 조금 울적해졌다. 호기롭게 도전했던 재수 생활이 스스로를 좀먹었던 시기에 쌓인 부정적인 감정을 어머니에게 털었던 적이 있다. '뭘 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끊이지 않았고 난 아무것도 못 하고 결국 실패할 거라는 단언을 내뱉는 나를 보며 어머니는 말없이 안아주셨었다. 공부를 못 해도 괜찮다라는 위로도 그런 정신 상태로 뭘 하겠냐는 호통도 없이 안아주시기만 하는 어머니에 한창 자학적인 말을 쏟아내던 나는 말없이 엉엉 울었다. 내 등을 쓰다듬어주시며 한동안 끌어안아주시고는 물을 떠다주시고 이불을 정리해주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사실 편지를 쓰기 전까지는 흐릿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편지를 쓰면서 그 장면이 점점 선명하게 기억났다. 선명해진 기억에 그때의 포옹이 얼마나 힘이 되었었는지가 세세히 기억 나서 짧은 시간임에도 제법 긴 내용을 쓰고 있었다. 그때 해주신 위로가 그 어떤 말보다 값졌다는 말과 함께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어머니 마음을 심란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편지에 적으며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 후 익숙함에 소중함을 놓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매일 보는 가족이 주는 사랑이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부끄럽다는 핑계로 어머니께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 우체국에 보낸 날 저녁에 어머니한테 작은 화분을 선물하며 편지는 나중에 우체국 배송으로 올 거라고 말했다. 그에 활짝 웃으시며 '화분도 고맙지만 편지가 더 기대되네. 계속 바쁘데도 편지도 써 주고 우리 딸이

제일 예뻐.' 라고 답해주시는 어머니에 기분이 간질거렸다. 학교 적응에 정신 없이 지냈어도 쉬고 있을 때 어머니랑 더 자주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할 거라는 아쉬움과 앞으로는 더 잘 챙겨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손편지는 받는 사람에게 최고의 감동을 준다고 생각한다. 메신저로 전하는 편지도 마음이야 드러나겠지만 손으로 꼭꼭 눌러담으며 써내리는 과정은 마치 꽃집에서 꽃을 사가는 과정과 같다. 어떤 꽃을 받아야 좋아할지, 포장을 기다리면서 받고 좋아하는 상대를 떠올리며 느끼는 행복은 편지에서 어떤 말을 전하면 좋아할지, 편지 봉투에 편지지를 담으면서 편지를 받고 행복해하는 상대를 떠올리며 미소 짓는 과정과 같기 때문이다. 손편지를 쓰면서 이런 과정을 꼭 겪어봤으면 좋겠다. 살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을 눌러담는 일이 몇 번이나 되겠는가. 좋은 마음만 전해주기에도 아까운 상대에게 최고의 기쁨을 선사하고 싶다면 효사랑 스승사랑 편지쓰기에 참여해보면 어떨까?

### 박\*아(한국어문학과)

효사랑 스승사랑 편지쓰기 후기 공모전은 매 학기마다 효사랑 스승사랑 편지쓰기에 후속하여 열리는 공모전이다. 여기서 집중할 점은, 먼저 효사랑 스승사랑 편지쓰기를 참여한 학생만 가능하다는 부분이다. 또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편지지와 봉투가 일반 편지지와 봉투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편지쓰기 공모전을 위해 재학생들이 낸 디자인을 공모전을 통해 재학생들이 직접 디자인을 투표해 나온 편지지와 봉투로 편지를 작성한다는 점이 훌륭하다고 본다. 후기 공모전까지 오는 과정이 총 이 공모전을 포함해 3단계 이상의 의사소통센터의 여러 관계자님들과 재학생들이 발랄한 디자인적 감각들이 모여 구성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작년에 처음 편지쓰기 후기 공모전을 알게 되어 노트에 메모를 해두고 꼼꼼이 편지쓰기를 되돌아보며 참가했다. 매 학기마다 감사한 인연들에게 손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으면서 매 학기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이 후기 공모전을 통해, 지인들에게 손 편지를 쓰는 경험을 해가며 아날로그식의 마음 전달, 의사소통을 하자라고 말이다.

받는 사람 선정 과정에 있어서는 그 해당하는 ‘월(달)’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한 만큼, 부모님에게 진심이 담긴 고백을 하고자 선정했다. 어버이날마다 부모님께서는 금전적인 선물보다는, 약간의 오글거리는 멘트와 솔직함이 깃든 편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 그렇기도 하다.

하지만, 받는 대상을 정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편지를 시작하는 건 매년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특히 부모님과 내 사이는 일상의 사소한 일들까지 서로 공유하는 편이다. 거의 숨길 게 없는 일상을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주제로 풀어나갈지 힘들었다. 그러나 올해 부모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건강’ 문제에 관해 격려와 위로 등을 시작으로 편지를 쓰다 보니, 한쪽 구석에 내 눈물이 지장처럼 남겨서 민망했다.

다음 날이면, 그 눈물자국이 지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님 중 엄마가 가장 먼저 기상하는 편이시라, 엄마의 베개에 그 편지를 몰래 어버이날 전 날 저녁에 숨겨뒀다. 부끄럽기도 해서 숨겨둔 것이었는데, 엄마는 그 편지를 못 발견하셨다. 학교 가기 전에 서프라이즈 겸으로 준비해 둔 게 계획형(형)인 내게는 좀 아쉬운 날이었다. 그러나 학교를 갔다 돌아오니, 엄마가 편지를 읽었다며 의외로 행복한 웃음을 띠고 상태였다. 오히려 그 편지를 읽고 슬퍼하시는 기색이 아니라 다행인 마음을 안고, 어버이날 서프라이즈인 듯 아닌 기념일을 챙겼다.

하고 싶은 말이 항상 많아 부모님과 소통하는 날이 많지만, 막상 말로는 못할 말을 애써 하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 가족 사이에서 올해 초의 화제였던 ‘건강’ 문제다. 항상 건강하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도, 나이가 들고,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핑계로 서로서로 놓치고 있었던 걸 손 편지 덕분에 솔직한 심경을 전달하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매년 두 학기에 걸쳐 총 5번의 편지 쓰기를 하고, 후기 공모전을 작년부터 시작하게 된 건 내게 인생의 돌파구다. 무언가를 잊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배우는 법을 스스로 깨닫게 알려 줬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가 진심을 전달하고는 싶지만, 입으로 내뱉기는 힘들 경우에 가천대학교 재학생이 만든 편지지와 봉투를 이용해 시도하고 기록해 남기기를 추천한다. 그렇지만 그전에 편지를 쓸 대상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그 대상에 대한 작성하는 사람의 ‘진실됨’을 고려해 그 받을 대상을 선정하면, 쓰는 이나 받는 이 모두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부한다.

그렇지만 이 편지 쓰기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은 누군가를 완벽히 특정하기는 어렵다.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에게 편지를 쓸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고민해보지 말고, 그 진심을 전달하기를 바란다. 나 또한 이 마음을 실제로 경험해 보면서 잊지 않고 매 학기 고맙고 소중한 대상에게 손 편지를 작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 박\*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한 동안 움직이지 않던 펜이 가볍게 한 문장을 땀다. 그 뒤로는 물꼬가 터진 듯 줄줄 써내려갔다. 어느 한 날의 추억, 이야기, 감사함... 가장 힘들었고, 그래서 아름다웠던 고등학교 3학년 그 한 해를 건널 수 있게 해주신 분이였다.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생활과 윤리 / 윤리와 사상 과목을 가르치신 선생님께 편지를 드렸다. 고등학생의 대입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고, 그래서 부모님께 도움 받는게 그 때 나에겐 굉장히 죄스러웠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 최대한 혼자 해결하는 의젓하고 걱정되지 않는 딸이 되고 싶었기에 부모님께 도움을 받지 않았다. 사설 인강이나 문제집을 부담스러워 했던 나를 위해 윤리 선생님은 고등학교 3학년 평일 아침마다 나에게 따로 공부를 가르쳐주셨다. 나를 위해 당신의 시간을 할애해주신 선생님 덕분에, 담임선생님이 아닌 과목 선생님이었음에도 나는 담임선생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윤리 선생님과 보냈었다. 수능 날 나는 작년 수능에 비해 등급컷이 꽤 많이 내려갔을 정도로 어려웠던 시험에서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았고, 무사히 대학에 진학했다. 졸업식 날, 졸업 후에도 자주 찾아뵙겠다고 말씀 드렸지만 약속이 무색하게 바쁘다는 이유로 잘 찾아뵙지 못했다.

까맣게 고등학교 생활을 잊고 차차 새로운 대학교의 일상에 몰두어가고 있을 때 즈음, 인성세미나 수업에서 “가천대학교에서 ‘효사랑 스승사랑 편지쓰기’ 활동을 연다”는 말을 전해 받았다. 공지를 보자마자, 바로 선생님이 생각났다. 감사함을 전하지 못한지가 조금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다. 대입을 도와주신 선생님께 합격한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합격한 대학교로 꾸며진 편지지에 편지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생각해도 윤리 선생님께서 뿌듯하게 여기실 거라 생각했다. 게다가 편지지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었기에, 그 편지지에 글을 쓴다는 것이 괜히 마음이 간지러웠다.

편지를 직접 전달해드리자 선생님은 편지를 읽고 나서 아무 말 없이 안아주셨다. 이후엔 가벼운 수다를 떨고,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말씀해주셨다. 지난 한 해의 단편을 다시 읽어본 느낌이었다. 동시에, 부끄러웠다. 선생님 또한 이미 많은 제자를 만나고 계시고, 만나실 것이다. 그러나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해주셨던 그 때의 그 마음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마음일텐데도 나는 이를 지나간 과거로 생각하고 나의 마음을 전하기를 미루어왔다. 선생님은 항상 나를 아껴주시고 표현해주셨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다. 그 때서야 깨달았다. 나는 감사함을 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전하지 않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꼭 만남이 아니더라도 몇 마디로 충분히 마음이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자도, 전화도 좋지만 너무 빠르고 일시적인 방법 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이 꼭꼭 묻어내는 손글씨로 감사함을 전하는 건 깊이의 차이가 크다. 누구나 한 구석에 품은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주저하고 있다면, ‘효사랑 스승사랑 편지쓰기’에 한 번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

## 양\*주(화공생명공학과)

편지라는 단어는 그 자체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SNS를 통한 장문의 편지, 인터넷 편지 등등 현대 사회의 편지 유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하지만 종이에 한 글자씩 직접 써내려가는 편지는 점점 마주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편지지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수기보다는 타자가 더 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아날로그스러운 편지를 쉽게 만날 기회가 있는데, 바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편지쓰기 공모전이다. 학교로부터 편지지와 우표를 수령받아 원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느낀 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작년과는 달리,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부모님 또는 스승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전달하는 것이다. 마침 스승의 날이 다가오는 터라 평소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께 편지를 보내드리기로 마음먹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의 담임 선생님이자 6학년 때 과학 과목을 맡으셨던 선생님께 편지를 작성하였다. 나에게 인생 멘토인 분이었고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다. 선생님을 다시 뵈게 된 건 2022년, 선생님을 처음 만나게 된 2012년으로부터 무려 10년 만이었다. 정말 신기했던 점은 선생님과 조금의 어색함도 없었다는 것이다. 마치 어제도 만났던 것처럼 그저 편안하기만 했다. 초등학교 복도나 책상은 너무나도 작아져 있었는데 선생님은 10년 전 그대로의 모습이였다. 올해 역시 스승의 날을 맞아 한 번 찾아 뵈고 싶었지만, 선생님께서 새로 발령받은 학교가 너무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 편지로 대신 전해드리려 한다.

편지를 보내드린 후 선생님께서 답장이 왔다. 선생님께서는 왕복 4시간의 출퇴근과 함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반의 국어 수업을 골고루 진행하신다고 하셨다. 지하철 통학길 하나로 힘들다고 투덜대던 내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여러 근황 이야기를 나누며 선생님의 따뜻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매년, 매 수업마다 선생님 자신의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고 발전시키려 하는 자세가 존경스러웠다. 50대를 넘어가고 계시지만 제자들과의 세대 차이를 최대한 좁히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멋있었다. 작년에 뵈러 갔을 때 요즘 유행하는 사진 촬영 포즈를 나에게 먼저 제안하신 점과 유행어도 꾸준히 접하려고 하시는 열린 자세를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정작 20대 초반인 나 역시 불과 고등학생에게도 세대 차이를 느끼곤 했는데, 그저 내가 세상을 좁게 보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학교 수업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계셨다. 초등학생인만큼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원하는 자세로 수업에 참여하라고 제안하셨다. 왜 꼭

책상에 정자세로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가. 바닥에 앉거나 누워서 들으면 좀 어때.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다.

이 공모전은 손으로 쓰는 편지에 대한 일종의 부담감을 없앨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편지지와 봉투, 우표까지 모두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만큼 놓치긴 아쉽다. 매번 달라지는 편지지 디자인을 구경하는 것도 쓸쓸한 재미 중 하나이다. 우리 학교의 상징을 귀엽게 나타낸,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편지지이다. 편지지의 디자인이 받는 사람의 기분에 플러스 요소가 되어준다고 생각한다. 선생님께서 편지를 보고 감동받으신 모습을 통해 나 역시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는 손편지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일 것이다.

## 오\*연(간호학과)

2023 효 사랑 스승 사랑 편지쓰기 프로그램은 이름처럼 부모님 또는 스승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손 편지로 작성 후 우편으로 발송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가천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살펴보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보던 중 효 사랑 스승 사랑 편지쓰기 프로그램을 발견하게 되었다. 평소에 프로그램의 취지인 일평생 내가 살아오는 데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에게 말로는 전하지 못했던 깊은 진심을 편지로 전달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어려워서 이번 기회를 통해 마음속 깊이 있었던 진심과 고마움을 손 편지에 꼭꼭 담아 드리면 좋을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다.

받는 사람을 선정할 때, 살아오면서 많은 분께 사랑을 받고, 도움을 많이 받아서 어느 분께 드려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었었다. 고민하며 나의 존재를 세상에서 버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스무 살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현재 본가랑 떨어진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버이날 갑자기 일이 생겨 본가에 내려가지 못하게 되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매년 직접 쓴 손 편지를 선물과 함께 만나서 드렸었는데, 올해는 내려가지 못해 드릴 방법을 찾지 못해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드리면 의미가 깊을 것 같아 부모님을 받는 사람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편지를 작성하면서 부모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었다. 편지를 작성하면서 부모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부모님과 전화하는데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잠은 잘 자는지, 떨어져 생활하는 기숙사 생활은 어떤지 물어보시는 부모님의 음성을 듣고 울컥했다. 부모님께서는 떨어져 있어도 항상 나를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나는 학교생활과 핑계로 부모님보다 친구를 우선시했던 행동들, 곁에 계시는 부모님의 존재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냈던 나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후회되었다. 편지의 내용에 아버지께서 평소에 무릎 안 좋으셔서 병원에 꾸준히 다니시는데, 건강이 걱정되어서 약 잘 챙겨 드시고 병원 꼬박꼬박 다니시라는 내용을 적었었다. 편지를 받으신 부모님께 “딸~ 편지 잘 읽었어. 바쁠 텐데 편지 써줘서 고마워. 아빠 무릎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문자가 왔었다. 문자 보고 마음이 붓는 느낌을 받으면서 코끝이 찡해졌다. 그 순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지내지 않았나라는 생각과 함께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효도가 무엇이 있을까도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었다.

2023 효 사랑 스승 사랑 편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는 빈도가 늘어났다. 편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문자나 메신저 어플을 통해 연락을 드리는 것이 과반수였는데 프로그램 이후에는 조금은 부끄러워도 영상통화나 음성 통화를 이용하는 편이다. 평소 어려워했던 고맙다, 사랑한다와 같은 표현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또한 본가도 멀지만 주기적으로 가서 부모님을 더 자주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3 효 사랑 스승 사랑 편지쓰기 프로그램을 가천대학교 학우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다. 2023 효 사랑 스승 사랑 편지쓰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스로 성찰하며 내면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고, 부모님의 소중함과 진득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학우분들께서도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님뿐만 아니라 도움을 많이 주신 선생님들의 사랑과 소중함을 느끼고, 느낀 감사함을 진심으로 표현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2023 효 사랑 스승 사랑 편지쓰기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 유\*연(행정학과)

평소처럼 수업을 듣기 위해 캠퍼스를 걷던 도중, '효사랑 스승사랑 편지쓰기 공모전' 홍보물을 발견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잠시 생각에 빠졌다. 이 공모전을 쉽고 간단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이다. 단지 부모님이나 혹은 스승님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나는 공모전의 제목에서 '효'라는 단어가 신경 쓰였다. 여러 TV 프로그램에서 독립한 후 부모님과 어색해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점점 부모님과의 통화가 줄어들고 명절에 찾아가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누구보다 가까웠던 부모님과 멀어진다. 많은 사람이 그럴 것이다. 효도랍시고 가끔 용돈을 보내드리거나 명절에 선물을 들고 찾아가기만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나는 빠른 독립을 꿈꾸기 때문에 어느 순간 TV에서 본 사연의 당사자가 내가 되어있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당장 성인이 된 첫해에도 밖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공모전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물론 용돈이나 선물을 드리는 것도 효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님을 거의 뵈지 않고 서로 대화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런 일을 한다면 나는 효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돈으로 효도를 사려고 하는 행위일 뿐이다. 나는 그런 효를 하고 싶지 않다.

이번 공모전은 부모님과 소통하고 마음을 전하는 둘도 없는 기회였다. 공모전을 신청하고 금방 집으로 귀여운 편지지와 편지 봉투가 왔다. 나는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편지를 쓴 뒤 어버이날에 꽃과 함께 전달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는 작은 실수로 인해 중간에 편지를 들켜버렸다. 책상에 두고 간 편지지를 가족이 보게 된 게 화근이었다. 하지만 나는 전혀 아쉽지 않았다. 오히려 부모님은 대학에 가서도 이런 공모전에 스스로 참가하는 나를 기특해하셨다. 나는 전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생각했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소통은 평소에 하는 것이지 미루고 미루다 어떤 날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편지를 들켰기에 웃음이 가득한 날을 만들 수 있었다.

말이 아닌 글만이 주는 매력이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오래 고민하고 말을 다듬을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마주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정제된 글 덕분에 상대 또한 내 마음을 한결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그 사건 이후로 부모님에게 다시 편지를 드렸다. 천천히 편지를 읽으신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다. 그 모습에 나도 정말 행복했다.

한편 이런 기회를 공모전의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든 학교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내년에도 꼭 이 공모전이 계속되어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

계속되는 한 졸업할 때까지 꼭 참여할 것이다. 분명 나는 점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소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평소 부모님과 서먹한 사람이 있다면 이 공모전을 강력히 추천한다. 평소에 전하지 못했던 말을 전할 수 있을뿐더러 나아가 평소에도 하고 싶은 말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거라고 장담한다.

### 최\*영(간호학과)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다시 대학교에 입학했다.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웬만하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학기 초에는 유독 학교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을 자주 들어갔다. 그러던 참에 부모님이나 스승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손편지 형식으로 작성해서 우편 발송까지 하는, 학교 측을 통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효사랑 스승사랑 편지쓰기' 프로그램이었다. 공지글을 보자마자 곧바로 딱 한 사람만 떠올랐고, 고민할 겨를도 없이 바로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다.

곧바로 떠오른 한 사람은 바로 엄마였는데, 얼핏보면 뻘한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는 '스승'의 관점에서 엄마를 선택한 이유가 훨씬 컸다. 10대부터 20대까지 길을 잃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엄마의 조언을 이정표 삼거나, 엄마의 무언의 응원에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간 일들이 많았다. 직장생활을 하던 도중 간호학과에 입학한 것도, 엄마가 아니었다면 감히 수능을 다시 본다는 생각조차 못했을 거다. 엄마는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스승으로서 함께 해줬고, 거기에 부모님이기도 하니 편지를 받는 사람으로는 이보다 적절한 사람이 없었다.

프로그램에 신청을 할 때는 할 말이 생각보다 적을까봐 어떤 얘기들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나이가 들면서 최근 몇 년 동안은 속에 있는 얘기를 대화를 통해서 많이 나눴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 전달할 다른 얘기들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지를 받고 나니 심적으로 엄마에게 쓸 얘기가 계속해서 떠올랐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고 한동안 심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이다. 시험을 한 번 못 본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어쩌면 함께 공부하는 동기들보다 경험을 통해 훨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느끼는 건 여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이 당시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며 힘이 되어주면서도 객관적인 현실을 짚어주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무작정 키우지 않도록 도와줬다. 이와 관련된 고마움,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한 미안함에 대해 글을 쓰려다 보니 편지 공간이 모자를 것 같아 메모장에 1차로 내용을 써 본 뒤 퇴고를 거쳐서 편지지에 옮겨야 했다.

그동안 늘 편지는 생각 나는대로, 손이 가는대로 썼었는데 두 장에 모든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으려다 보니 퇴고를 거쳐 편지 내용을 옮기는 작업을 처음

하게 됐다. 한 번 해보고나니, 다음에도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일이 생기면 따로 쓸 내용을 써 본 뒤 다듬고 정리해서 편지지에 옮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고 싶은 말을 빠뜨리지 않고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편지를 보내는 상대방에 대해 다시 한 번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지속해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우체국에 들러 편지를 부치고 나오는 길에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동안 내 친구들에 비해 나는 통화도 자주 하고, 속 얘기도 많이 하는 편이라 생각했는데 최근 몇 년 간은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통화나 대화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에 정성이 필요한 편지는 후순위로 밀어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학창 시절에는 책상에 항상 편지지가 있어서 기념일이나 내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마다 편지를 썼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편지지를 찾아보니 이사하면서 편지지를 챙기지도 않고 본가 책상 서랍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 정도면 살가운 딸이지'라는 생각은 당분간 접어두고 좀 더 자주 크고 작은 이벤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체국에서 시작된 뜬금없는 평일 낮 딸내미 목소리에 초반엔 엄마가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그날 저녁 나한테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준 것으로 봐서 내심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 뿌듯했다. 혹시라도 매 학기 혹은 매년마다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어떤 학년, 어떤 상황에 있는 학우에게라도 적극 권장한다. 처음 시작은 절차가 복잡해보이고 긴 일정을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특히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학우들이라면 신청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울거라고 생각한다. 나조차도 처음에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그걸 상쇄시킬 만큼 학교 생활과 공부를 해야 할 상황에 다른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치만 어찌됐건 일단 이 프로그램을 끝내가고 있는 입장에서 감회를 밝히자면 시간이나 에너지도 별로 들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무엇보다 편지를 보내는 대상인 엄마와의 관계가 좀 더 다른 차원으로 따뜻해진 것 같아서 지금은 학업으로 인해 떨어져 지내고 있음에도 유대감은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이어져 있다는 안정감이 느껴져서 정말 만족한다. 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엄마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굳이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전하고 싶거나 말하지 못했던 속 얘기를 전하고 싶은 학우라면 언젠고 이 프로그램을 핑계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 편지 한 장에 예상치 못한 유대감까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한\*진(화공생명공학과)

5월, 비로소 봄이 왔다고 느끼는 이 달은 그리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의 달이다. 마침 학교 의사소통센터에서 효사랑 스승사랑 편지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신청하게 되었다.

어떤 분께 편지를 쓸까 고민하던 중, 문득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생각이 났다. 대학 진학에 있어서 수없이 방황하며 혼란스러워하던 시기에 나를 단단히 잡아주시며 선택에 확신을 주신 선생님께 편지를 쓰고자 펜을 들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20\*\*년 제자 한에진입니다.’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는 순간 교복을 입고 다니던 약 4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쏟아졌다.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는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듣는 선택제로 바뀌는 해였다. 원래 국어국문학과를 희망하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 단지 과학이 좋아 이과로 왔고, 교사의 꿈을 꾸었다가 이제는 목표를 잃은 내게 과목을 일일이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혼란 그 자체였다. 이 선택으로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가가 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고민했다. 당시 2학년 담임선생님과 여러 차례 상담을 했었다. 사실 선택과목을 고르기만 하면 되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지금까지 확실하게 문과를 희망하던 내가 이과로 쭉 나아가는 것이 맞을지가 고민이었다. 그때 선생님께서 한 번도 대외적으로는 밝히지 않았던 본인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해주셨다. 지금은 국어과목을 가르치고 있으나, 고등학생 때 이과였고 대학을 공대로 갔으나 여러 상황을 겪으며 국어 교사의 길을 새로이 걷게 되었다고 하셨다. 지금의 선택이 물론 앞으로 나아갈 길에 영향은 미치겠으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분명히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용기를 주셨다. 지금 선택하는 이 길 역시 그 어떤 것이든 순간순간의 경험들이 모여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던 나를 다독여주셨다.

편지를 작성하며 당시의 상담을 통해 느꼈던 감정이나 감사한 마음을 많이 담아내었다. 상담을 하면서 많이 울었는데 그때마다 다정하게 보듬어주시고, 현실적으로도 말씀해주시며 진로 상담뿐 아니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인생을 살아가며 무수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지만, 그 선택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다. 단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지에 달렸을 뿐, 의지만 있다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까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신 선생님께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단지 수능, 입시밖에 모르는 고등학생에게 잠시 고민을 내려두고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여유를 만들어

주신 분이였다. 진로뿐만 아니라 반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게, 단합이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다. 가끔 1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는 밴드(band)에 들어가 당시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게시글을 보면 그렇게 몽클할 수 없다고, 소설 속에서만 보던 학창 시절의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2학년 \*반 친구들을 만나 담임선생님으로 선생님과 함께 1년을 그려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마음을 전달 할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살면서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물론 SNS나 말로 쉽게 그 마음을 전달 할 수 있으나, 편지로 전하는 마음은 그 어떤 수단보다 진중하고,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그렇기에 편지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은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을 적극 추천한다. 대학에 진학한 뒤 한동안 찾아뵈지 못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선생님께 인사드리러 갈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우표와 우리 학교의 상징을 귀엽게 그려낸 편지지, 편지봉투를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어 시판되는 편지지에 작성하는 것에 비해 의미가 남달랐다. 별일은 아니지만 편지지를 사러 가기까지 고민을 하게 되고 귀찮음에 미루곤 하는데 집까지 배송해주어 더욱 편리하였다.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는 만큼, 다른 학우들도 뿌듯한 경험을 함께하길 바란다.